

성공적인 원 아시아(One Asia)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시아 연합(New Asia-Union) 모델 제안

Team 국하니

양소희(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유연준(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 1. 서론: 아시아연합(Asia Union)의 필요성과 현 실태에 대하여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한다. AEC는 아시아지역 통합을 의미하는 '원아시아(One Asia)' 구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아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어가려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아시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경제발전 단계, 정치체제, 종교, 언어, 역사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통합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하다. 프놈펜 포스트의 채드 윌리엄스는 '아시아 연합의 실현은 아직 먼 얘기'라고 주장하며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OECD의 전 사무총장이었던 도날드 존스톤 역시 '지리적, 역사, 문화의 환경이 유럽의 그것과 현저히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실패로 직결하는 연합체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현존하는 아시아 공동체들이 지닌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양성'은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실질적인 연합을 구성하고 원아시아를 이끌어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리학적, 문화 경제적 다양성을 모두 끌어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아시아 공동체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에 더욱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연합체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국하니팀이 제안하는 'New Asia Union'

### a. 경제 협력 방안: Asia ODA 시스템 인프라 구축

Asian Union 소속 국가들간의 원활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공적 원조 개발 (ODA)라고 판단하였다. 아시아 내에는 현재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들도 있으며, 신흥공업국으로써 몇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국가들이 함께 공존하며 범위 역시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여기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현 아시아 경제 협력체인 APEC, 그리고 신규 출범하는 AEC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름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경제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것 보다 연합 내에서 수요층이 두텁고 전망 있는 개발분야에 집중하여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i. AU 소속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또는 연합체 사무국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수요를 알리고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혜국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를 포함해 공여국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ii. 반대로 공여국은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분야 - 유상원조, 기술개발협력, 교육원조 등 -를 먼저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혜국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여기서 연합체 사무국들이 1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50%의 비율 이상 매칭되었을 경우 각 국가를 연결해주며, 이후 각 국가 정부끼리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보다 자율적인 공조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ii. 강제성을 띠는 공적 원조가 아니므로 공여국들의 부담-경제적 부담 및 국민 정서 등-이 확연히 줄어들 뿐 아니라 수혜국들 역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 분야를 정확히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효과적인 경제 교류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의 AIIB와 달리 한 국가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가 주도하는 성격의 개발협력이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

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b. 국제 지역학 ICT 포럼을 통한 범국가적 차원의 문화 교류 증진



(그림1. 연례 국제지역학포럼의 대표 세션 운영 모델 시각화 자료,

그림2. 지속적인 문화 교류 및 논의를 위한 App출시, 포럼 세션 내용 E-book출간, 사이버 포럼)

국제 지역학 ICT 포럼은 연 2회, AU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각 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규모의 '융합적 문화 교류' 지향 포럼이다.

- i. 개최 순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한 알파벳 순서로 진행하며, 주최국에 파견할 수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대표를 최소 5명씩 선발하여 파견한다; 파견은 공식적인 AU 산하 행사의 성격을 띠므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선발되지 않는 참가자들도 AU 소속 국가가 국적인 경우 참가비 50%이하, 이외 타국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100% 지불했을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 ii. 국제 지역학 ICT 포럼은 크게 토론 및 부스체험 세션으로 나뉘는데, 토론(Discussion) 세션에는 매회 주최국에서 제시한 3가지 주제에 따라 자국 및 AU 회원국에서 파견된 대표단들이 연구해오거나 고안해온 의견을 나누고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일반 포럼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 iii. 토론 세션과 별도로 동 시간대 함께 진행되는 문화 체험 부스 세션은 주최국이 정한 테마에 맞춰 자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구성하여 타국 참가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오감으로써 체험하고,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한다. 참가자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세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문화 체험 부스에서 활동하며 주최국의 문화를 배우고 느낀다.
- iv. 뿐만 아니라 논의와 교류의 지속성을 더하기 위하여 본 포럼에 ICT 성격을 더하였는데, 즉 포럼 당일에만 이러한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최국이 포럼 이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논제에 대하여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AU 회원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논제는 주최국이 현재 안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국가 차원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행되는 AU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토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솔루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포럼에 참가했던 대표단과 청중들이 꾸준히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를 진행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AU 소속 회원국들에게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혀 각 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다.

c. Asia Union Youth Workcamp를 통한 평화 시민 교육

워크캠프를 연 1회 각 나라별로 비슷한 시기(방학 중심)에 개최하여 20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시각, 혹은 각 나라의 입장들을 토의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대상은 청소년으로(만9세 이상 24세 이하) 한정하는데 이는 평화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므로 이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 i. 워크캠프는 개최되는 나라별로 20개 국가에서 2명의 국가대표단을 선발해 단기간(2-3주)간 하나의 워크 캠프 주제(ex; 지역/마을 축제 개최, 보수작업, 장애 아동 봉사, 전쟁 스터디 등)를 이뤄나가는 동안 같이 생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 의의를 둔다.
- ii.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엄선된 면접과 자기PR로 합격된 합격자들은 개최국과 워크캠프 주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다른 문화를 가진 대표들과 워크캠프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한다. 또한 온전히 노동 성격의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목을 조성하고 개최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일 여행 및 자율 여행도 일정에 포함한다. 생활 기간 동안 대체로 직접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며, 하나의 정해진 목표에 따라 각 국가의 청년들이 협업하고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동체가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한 청년들 각자도 궁극적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된다.
- iii. 워크캠프 이후에도 연례 보고회, Alumni Party 등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이 느끼고 배워온 것들을 직접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합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또한 매년 청년들이 함께 시각을 공유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에 관용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주제선정과 지역 차원에서의 협의에 집중하고, 나아가 직접 참여한 청년 참가자들과 수혜를 받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자세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New Asia Union: 새로운 원아시아(One-asia)의 시작을 위해

원 아시아(One Asia)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장벽은 경제, 문화, 분쟁, 역사, 다양성 등으로 가로막혀있다. 유럽은 10년의 길지만 짧은 시간 동안 EU라는 연합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는데 이는 국가간 노력을 포함하여 문화적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 선천적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아시아는 동북아 및 동남아간의 지리학적, 문화적, 경제적 등의 차이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다양하고 동시에 각 국가의 독립성 역시 높은 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ICT 포럼을 통한 융합적 문화 교류를 시행함과 동시에 타국과 자국 토론자들이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토의를 이어감으로써 그 차이를 좁히도록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화 워크캠프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AU 소속 국가 출신의 청소년들과 함께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관용과 포용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새로운 원아시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제안하는 AU는 경제-문화-평화의 통합과 공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걸림돌의 위기로서 지적되는 다양성을 아시아만이 지닌 특색으로써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원아시아의 미래", 세계지식포럼 (도날드 존스톤, 채드윌리엄스, 이사벨 드 르온), 2015. 10
2. "지속가능한 아시아 발전전략: 아시아연합의 구성과 협력방안", 박상현, 지속가능과학회, 2011.
3. "EMU: A role model of an Asian Union?", DB Research, 2008
4. "East Asian Currency Union", 이정화, 고려대학교, 2010.
5.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010.
6.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제주평화연구원
7. 외교통상부(2011), 『아세안 개황』, 외교통상부
8. "ASEAN+3 발전과정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의 전망", 조갑제, 사회과학논총 제29 집 2호, 2010.